

제1790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1월 3일 (음력 9월 24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土)	4(日)
구름 조금 4/16°C	구름 조금 5/18°C

News

- 폐가망신 연대보증 금증 ②
- 자리산 최고령 송이꾼 ③
- 광주남구청 '1직원 1재산' ④

Jeollado

- 그 사람·이영일 前의원 ⑦



Entertainment

- 90년대 가수 잇단 새음반 ⑧
- 11월 美·日영화 몰려온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모과 ⑬



우리에게는 정착 5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univ.ac.kr>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univ.ac.kr>



광주·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전국 13개 시·도 주민 3천여명이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집중화 반대' 3천명 서울 도심 집회

“균형발전, 거꾸로 가지 말라”

1천120만명 서명·가두 행진...수도권 정비법 개정 저지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1천만인 국민대회'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시·도민 3천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국민대회에는 김윤석 광주시 정무부시장과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광주·전남지역 주민 300여명도 8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상경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민들이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며 서울 한복판에서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상대로 공동집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이처럼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정부가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지방의 산업·경제기반이 고사위기에 직면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이날 국민대회는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 전국에서 1천120만 명이 서명한 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각계의 지지 법인과 지역균형 발전 촉구 자전거투쟁단 입장, 공동성명서 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는 현재의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과 정부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균형발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이낙연 (함평·영광) 국회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계속해 지방은 이제 사람도, 돈도 없는 폐허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대회가 끝난 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주민 1천120만명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성경릉 정책실장을 면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청계광장까지 도보로 가두행진을 벌인데 이어 청계광장에서 KBS, MBC, SBS 방송국 앞까지 차량시위를 벌였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회창 대선 출마 결심”

이 전총재 측근 “내주 탈당·출마 선언·신당 창당 검토”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이회창·고건·박근혜 연대 제안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사실상 대선출마 결심을 굳히고 내주 중 한나라당을 탈당해 보수 세력 대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전 총재가 최종 결심을 굳히면 내주 초인 7~8일께 탈당과 함께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특히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와 박근혜 전 대표, 고건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각제 정부 수립을 위한 '4자 연대'를 공식 제안하면서, 이명박 후보 단독질구 구도에 대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이 전 총재의 대변인격인 이홍주 특보는 심 후보의 4자연대 구상에 대해 "이 전 총재가 최종 결심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

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이 전 총재가 정치 일선에 복귀해 일을 하는 것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사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의 측근인 백승룡 전 의원은 1일 "이 전 총재가 내주 대국민성명을 밝힌 직후 한나라당을 탈당할 것으로 안다"며 "신당을 만들어서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참여인사는 이 전 총재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세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총재측이 세규합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특보단을 중심으로 38인이 지지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가 출마를 결정할 경우 연말 대선은 당분간 다자간 구도로 전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보성 녹차, 세계 명품 브랜드 선정

보성녹차를 비롯, 토종 브랜드인 화장 품 설화수와 아파트 자이가 벤츠, 버버리 등 해외의 유명 브랜드와 함께 세계 명품 브랜드에 선정됐다.

세계명품브랜드선정위원회(위원장 윤

명중)는 2일 한국수입업협회와 공동 주최하고 주한 EU상공회의소가 후원한 '2007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의 음료 부문에 보성 녹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대학등록금 후불제 내년 추진

권오규 경제부총리 밝혀

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하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내년에 추진 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국정감사에 출석해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와 같은 것으로 호주에서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3만6천달러 이상이 되면 상환하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된다.

칠 사람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권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출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와 같은 것으로 호주에서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3만6천달러 이상이 되면 상환하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된다.

/연합뉴스

100년의 사랑...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까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젊다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까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까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까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끊는 까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약, 고추틴크, 계피, 옥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이윤자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까스활명수큐